

가정의 달 5월은 '광양여행' 가는 달

아이 손잡고 미술관, 예술창고, 에코파크까지... 다채로운 문화예술공간 추천

광양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오붓하게 떠날 수 있는 관광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먼저 고품격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포스코 홍보관 및 미술관, 광양문화예술회관, 인서리공원 등을 추천했다. 더불어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박물관 등을 두루 갖춘 백운산자연휴양림의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했다.

●아이들과 손잡고 미술관 등 고품격 문화예술공간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래리 피트먼의 '거울&은유', 강종열 초대전 '동백, 시간의 얼굴', 청년작가전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 기증전시실 '바람·빛·물결' 등 스펙트럼 넓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황금연휴 기간 중 5일 6일은 정상 개관, 7일은 휴관한다.

광양예술창고는 전남도립미술관과 인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오밀조밀한 전시 공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편안하고 자유로운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지난 4월 개관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한 포스코 홍보관은 사전 견학 신청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홍보관 내 포스코 미술관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개관을 기념해 '빛의 여정'을 주제로 한 소장품전을 진행 중이다. 전시는 내빈



의 빛, 자연의 빛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관한다.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틸보 윤상이 사랑한 현대화가들'을 주제로, '윤상 수집 현대화가 작품전 기념 서화첩'에 참여한 화가 10인의 작품을 비교 전시 중이다. 이 전시는 6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황금연휴 기간에도 휴관 없이 개관한다.

인서리공원은 전시, 스테이, 카페, 아트샵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MZ세대의 인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월·화요일은 휴관하지만 어린이날인 5일은 정상 운영한다. 특히 옛 양곡창고를 개조한 전시 공간 '반창고'에서는 구상화의 대가 김종학 화백, 행복을 그리는 에바 엘머스, 이월중, 유쾌한 감싸오 작가의 오브제 등을 만날 수 있는 '유쾌한 봄' 전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피톤치드 가득한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웰니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해발 1,222m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웰니스 관광지다.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박물관, 향토티,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인 '치유의 숲'은 외부에서 즐기는 풍욕, 타죽과 내부에서 체험하는 아로마테라피, 명상요가, 족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 하루 두 차례, 2시간씩 운영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나무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백공방, 매화공방, 백운공방 등 수준별 목공 체험장이 운영되며, 어린이를 위한 목재체험 놀이터 '나무 상상 놀이터'도 마련돼 있다. 치유의 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은 광양시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광양/신선호 기자

제46회 담양군민의 날 행사 성료... 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의 장 마련 담양 발전 헌신해 온 이들에게 '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 수여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3일 담양대나무축제 주무대에서 제46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군민과 함께 담양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정체성 확립'과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이라는 추진방침 아래, 지역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담양대나무축제와 연계한 이날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군의원, 지역주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군민헌장 낭독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 ▲군수 기념사 ▲내빈축사 ▲군민의 노래 합창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담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에게 '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이 수여됐다.

'군민의 상'은 사회복지 부문에 박영



돈 대한노인회 담양군지부회장, 체육진흥 부문에 김원택 담양군게이트볼협회 전무이사, 산업경제 부문에 양남근 수북농협조합장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조미자 광주전남시도민회여성회 수석 부회장이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와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혜인 담양군향촌변화사와 박다인 농협중앙회 담양군

지부 농정지원단 과장에게 '명예군민증'이 수여됐다.

정철원 군수는 기념사에서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담양의 오늘을 만들어오신 주인공"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화순군, 행안부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 '우수' 달성, 특별교부세 4,000만 원 확보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화순군

은 1분기 도내 1위를 달성하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4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군은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였고, 부단체장 주재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사업별 추진 상황과 부진 사유를 면밀하게 분

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물료 1분기 목표 대비 120.90%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곡성군,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개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5월부터 기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운영한다고 전했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단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협

업하여 개발 중인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업종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위치 정보와 각종 법령,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는 개별 입지 공장 설립에 주된 문제가 되는 입지선정 문제와 환경규제 문제를 사전에 안내하여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진도의 맛과 멋이 녹아든 '울돌목 주말장터' 개장

울돌목 광장에서 3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11:00~18:00 운영

진도군은 '울돌목 주말장터'가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광장에서 5월 3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한다고 밝혔다.

울돌목 주말장터는 5월 3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진도군에서 생산한 특산품과 농·수산물을 활용해 만든 요리를 판매함으로써 상인들과 관광객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장식은 연희단 '락풍'의 비

나리, 삼도설장고, 국악가요 등 전통 국악 공연으로 시작된다.

문화 공연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장터를 찾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울돌목 주말장터가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암반딧불이 축제, 자연 속 고즈넉한 밤... "3천 마리의 반딧불과 별이 흐르는 시간"

영암군충박박물관은 오는 6월 5일(목)부터 6월 9일(월)까지, 반딧불이 서식지의 생태적 가치를 지역과 함께 조명하는 '영암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숲의 기억, 별빛의 이야기'를 주제로, 고요하고 은은한 자연의 밤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생태문화축제로 기획되었다. 축제의 무대가 되는 기찬랜드 일대는 계곡 물과 숲이 어우러진 공원형 공간으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별명존', '별명존', 인디언 텐트와 반백촌' 등을 통해 감성적 휴식을 제공한다.

축제 기간 중 관람객은 총 3천 마리 이상의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생태 탐방에

조별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해설사와 함께 반딧불이 서식지를 방문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생명의 빛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야간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6월 7일(토) 열리는 '최지몽의 별 헤는 밤'은 역사적 인물 최지몽의 이름을 딴 이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전문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 관측 체험과 함께, 별빛 아래 최지몽에 대한 이야기와 별자리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통공예·로컬푸드 체험 부스, 어린이를 위한 곤충놀이 체험, 그리고 조선시대 패의 야의 미술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

부터 청년 세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축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영암군충박박물관 홈페이지(www.영암군충박박물관.com)를 통해 가능하다.

영암군충박박물관 관계자는 "반딧불이는 단순한 곤충이 아닌, 마한시대부터 이어진 지역의 생태적 유산이자 자연의 감동을 전하는 매개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공동체적 축제 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062-525-9775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울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 멋진 나를
더 크게 웃을 것
평범하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및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
평화적인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범한 것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